

'제112주년 철도의 날' 기념식 성료

- 공단 최종현 총무처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

'제112회 철도의 날' 기념식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동소재 철도트윈타워 2층 대강당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철도산업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은 차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완전개통과 서울~광주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착공을 통하여 전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철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철도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철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꿈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희국 차관은 철도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과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정부포상에는 최종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총무처장과 박진성 한국철도공사 상품개발처장이 각각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4명이, 한국철도공사 지용태 처장 등 130명이 국토해양부장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이 끝난 오후 13:30부터 17:40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대학 공동주관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철도기술』이란 주제로 철도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수도권고속철도 개찰 집행과정 공개

- 공단 입찰업무의 투명성 입증 -

관리본부 계약처(처장 이영주)는 지난 15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노반공사 9개 공구에 대하여 입찰 참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05호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개찰을 집행하였다.

이번 건은 지난 6월 1일 입찰 공고하여 당초 8월 3일 개찰코자 하였으나 그동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심의 지연에 따라 개찰일정을 잠정 연기하였던 것을 이번에 개찰한 것이다.

입찰자를 참관시켜 현장에서 개찰한 것은 2006년 KR전자 조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개찰 연기로 인해 업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계약처는 공개 개찰에 앞서 가격 투찰에서 예정가격 생성 및 저장, 개찰에 이르는 입찰 집행 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실제 개찰과정을 참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였다.

특히, KR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체계 설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인위적인 조작이나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날 공개 개찰에 참석한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계약처는 "이번 공개 개찰이 공단과 협력업체간에 신뢰를 쌓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참관인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날 개찰한 수도권고속철도사업 9개 공구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1단계 저가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7일까지 추가사유서를 제출받아 2단계 저가 심사(10/20~10/28)를 갖고 10월말 최종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리본부 김억수 기자>



중남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 T&T, 콜롬비아 해외철도 시장조사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선호)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남미 해외인프라 수주지원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주관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에 해외사업기획처 김도원 처장 외 1명을 참여시켰다.

이번 지원단 활동을 통해 공단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콜롬비아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주요 정부기관 방문 및 수주활동 전개하였다.

콜롬비아는 조만간 중앙선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국가기획처 부처장, 교통부 차관, 발주처인 민자사업청(INCO)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철도의 우수성, 공단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업 수주를 위한 정보 입수 및 인맥 형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 및 보고타시에서 주관한 '한-콜 재생에너지/도시인프라 협력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공단의 저력과 위상을 홍보하며 철도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건설부 장관과 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정부에서 추진했던 급행철도사업의 철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당분간 철도사업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해외사업본부 임영주기자>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나눔 실천

-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가정에 추석명절 선물 후원 -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지난 7~9일 부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추석 명절 정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4,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차량 12대를 지원하여 설명절 음식준비, 무료급식봉사와 사랑의 후원물품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KR영남봉사단원 40여명은 전날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음식을 포장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3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다.

명절 음식과 쌀 등이 배달된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가정은 KR영남봉사단이 2005년부터 해마다 명절시 봉사 활동을 시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2011년 사랑의 한가위 옥삭情
일시: 2011년 9월 8일 ~ 9월 9일 주최: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건설처 직무교육 실시

- 소통과 화합의 장 열려 -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성)는 지난 19일 허옥신 건설처장 주관으로 본사 27층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 업무추진에 항상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 ▲ 청렴과 윤리는 공복으로서의 기본자세임을 명심 등 이사장의 당부말씀을 숙지하였다.

또한 운영선 철도건설시공관련 준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본부 건설처의 취약분야인 전화친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친절환 전화 받는 실습과 편의제공 발생 예방 교육을 가졌다.

허옥신 건설처장은 협력사 직원 및 용지보상 민원인을 응대시 내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기, 모든 업무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 자신의 업무는 best가 되자고 당부하였다.

<충청본부 정영진 기자>



바다 위의 협곡을 즐기다, 강원 삼척

고래무덤에서 시원한 해양스포츠를 즐겨보자
동굴에서 느껴보는 자연의 오묘한 신비로움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는 모래사장과 항구, 갯바위 등이 어우러진 바닷가 마을이다. 육지를 향해 돌출해 파고 들어온 지형을 활용한 천혜의 항구가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이 마을에 붙여진 별명도 어찌가 발달했음을 알려주는 '고래무덤'이다.

장호리는 다양한 바다체험이 있는 어촌체험마을이다. 이곳에서 가장 이쁜나 어촌체험은 해양스포츠이다. 해외의 휴양지에서나 즐기는 것이와 여겼던 스노클링은 물론, 바다생태탐험하기, 래프팅보트를 타고 바다래프팅 즐기기, 래프팅보트를 기차처럼 연결한 후 모터보트가 이끌고 다니는 바다기차 체험하기 등이 그것이다.

적극적인 손길을 원하면 바다낚시에 도전해보자. 장호리는 낚시마니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갯바위 낚시 포인트이다. 장호리 해양스포츠체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진다. 바다 낚씨가 나빠 배를 탈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장호리 인근의 볼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해신당공원이다. 원덕읍 갈남리에 자리한 이곳에는 남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을사람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처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실물모양의 남근을 깎아 해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해신당공원 안에 자리한 어촌민속전시관에서 해신당에 얽힌 이야기와 동해안 어촌의 옛모습, 동해안별신굿, 바닷가 금기사항 등 다양한 풍습 등도 살펴보자.

삼척의 내륙을 대표하는 공간은 대이리동굴지대이다. 이동 중 삼척 시내의 죽서루에 들러 오십천의 정취를 누리 후 건너편에 자리한 동굴예술포장에 들러보자.

2007년 6월에 개방된 대금굴 안에는 커튼형 중유석과 지팡이 굵기의 3.5m 중유석, 계단식 눈처럼 층을 이룬 휴석소 등 화려한 동굴생성물이 즐비하다. 대이리동굴지대의 관람은 인터넷예약제로 이루어진다.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는 환선굴은 총연장 6.2km의 동굴로, 1.6km 정도만 개방구간이며, 관람 소요시간은 매표소에서 입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동굴내부 관람 1시간으로 총 2시간이다. 9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표는 오후 5시에 마감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는 새로운 꿈을 꾸는 도계유리마을 사람들이 있다. 유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폐광석의 소모를 유도할 수 있으니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공간인 셈이다. 유리공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도계 거주자들을 최우선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유리공예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유리를 불에 달궈 원하는 모양의 장신구 만들기, 컵에 그림을 그려 불인 후 모래로 깎아내는 세상에 하나뿐인 컵 만들기 등이다. 온 가족의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삼척에 건다면 바다열차도 이용해 보자. 삼척-동해-강릉을 잇는 58km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달리는 바다열차는 전 좌석을 측면방향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일반열차보다 크게 만들어 동해의 넘실거리는 파도와 드넓은 백사장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여행 열차다. <레일&뉴스 유정우 기자>

경조사

- 호남본부 건설처 김대희사원 결혼
- 일시: 2011년 9월 24일(토요일) 11:00
- 장소: 웨딩의 전당 노블레스 6층 페리도 홀(대전 용전동)